

SK

브라질에서 유전개발 성공



SK주식회사가 국내 최초로 브라질에서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SK주식회사는 5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이 추정되는 브라질 BM-C-8 광구의 상업성을 확인하고 개발단계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주식회사는

동 광구에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추정 매장량 중 약 2천만 배럴이 SK주식회사의 몫이다.

브라질 BM-C-8 광구는 브라질 리오 데자이네루 동쪽 250Km 해상에 위치한 광구로, SK주식회사는 지난 2000년 9월 미국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데본에너지(Devon Energy)(지분을 60%)와 함께 광권을 취득해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해 왔다.

양사는 광권 계약 체결 후, 3개의 탐사정과 2개의 평가정 시추를 통해 탐사 및 평가작업을 진행한 결과 5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 추정 매장량을 확인했다. 금번 상업성 확인에 따라 2006년 초부터 하루 5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생산설비 건설에 착수해 2007년 하반기부터 상업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권계약에 따라 SK주식회사/데본에너지 양사는 BM-C-8 광구에서 향후 27년간 원유를 개발/생산할 계획이다.

SK

세계 최초 개발 'APU 기술 수출



SK주식회사는 지난 7월 6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최태원 회장, 신현철 사장 등과 악센스사의 장 쉐네타크(Jean Sentenac)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주식회사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PU 기술(열분해 기술인 최적활용 기술, Advanced Pyrolysis Gasoline Upgrading Technology)'의 세계 시장 마케팅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프랑스 악센스(Axens)사와 체결했다.

이번 계약체결로 세계적인 촉매/공정 기술판매(라이센싱) 회사인 악센스는 전세계 석유화학공장에 SK주식회사가 개발한 APU 공정과 촉매를 판매하고, SK주식회사는 악센스로부터 기술 판매 로열티와 함께 촉매공급에 따른 촉매 판매수익을 받게 된다.

SK

판매사 CEO와 '고객만족 한마음'



SK주식회사 신현철 사장과 SK네트웍스 정만원 사장은 지난 5월 31일 각각 SK의 대표 주유소인 반포주유소와 여의도주유소에서 매장을 찾은 고객들을 직접 맞이하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일일 주유소 현장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들의 고객만족 마인드를 제고하고 고객만족 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SK주식회사 E&M사업부문 및 SK네트웍스 에너지판매부문 임직원 등 총 1천600명이 참여했다.

SK

폴리머 제품 중국시장 적극 개척에 나서

SK주식회사는 "6월 21일부터 24일까



지 4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차이나플라스, CHINAPLAS 2005)에 자사의 합성수지 제품 등을 출품한다"고 지난 6월 21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차이나플라스(CHINAPLAS 2005)는 미래의 플라스틱 산업 기술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다. 이번 차이나플라스 2005에는 국내 업체로는 SK주식회사, 삼양사를 비롯 11개사가 제품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오스트리아/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등 10개국 이 국가관 출품을 하는 등 전세계 1천개 이상의 업체가 출품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법인차량관리시스템(FMS)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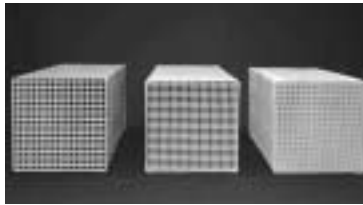
SK주식회사는 법인차량관리시스템(FMS : Fleet Management System, 이하 FMS)을 이달부터 출시하고 시범 서비스를 원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Cartizen사업은 2000년도에 우수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 이상차

량 장기대여 하는 렌터카사업을 시작으로, 이번에 SK주식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차량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FMS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였다.

SK

독자개발 촉매 기술 중소벤처기업에 제공



SK주식회사는 지난 6월 15일 보령 및 하동 화력발전소 탈질설비에 소요되는 500톤 규모의 배연탈질 촉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배연탈질 촉매(배연탈질용 선택적 환원촉매, SCR촉매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Catalyst)는 발전소, 소각로, 화학공장 등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200~450℃의 온도에서 환원제인 암모니아와 혼합해 환경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시켜 제거하는 환경오염 방지용 촉매로서 미국, 일본,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만이 기술을 보유해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SK

'상생경영 마스터플랜' 설명회 개최



SK주식회사는 지난 5월 31일 서린동 본사에 자사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업체를 초청, '중소기업 상생경영 마스터플랜 설명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현철 사장은 "SK주식회사는 협력업체와 더불어 동반 성장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더 깨닫게 되었으며, SK주식회사가 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행복극대화를 위해서 협력업체와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SK

국내최초 포인트 장학금 프로그램 'i promise(아이 프라미스)' 서비스 시작

SK주식회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부모가 모은 OK캐쉬백 포인트를 자녀의 포인트저금통에 적립해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장학금 'i promise(아이 프라미스)'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i promise 서비스는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된 저금통을 개설하여 일정기간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학자금 혹은 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산계념 서비스이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허동수 회장은 지난 6월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고철환 PCSDX(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장, 환경부장관 및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농림부장관 그리고 박용성 환경보전협회장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에서, 허동수 회장은 노대통령으로부터 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이런 수훈은 지난 2002년 3월에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를 창설, 사회와 공존하는 기업이라는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환경 현안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GS칼텍스

해외 장기 신용등급 상향 조정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사는 지난 7월 5일 회사의 해외 장기 신용등급을 'Baa2'에서 'Baa1'로 한 등급 상향 조정하고 향후 전망도 '안정적(Stable)'이라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생산 및 영업전반에 걸쳐 업계 최고수준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무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지난 1999년 12월 이후부터 국내 에너지 업계 중 최고의 신용등급을 유지하여 업계의 리더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하게 되었고, 회사의 국제 신용도가 한 단계 높아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다 나은 조건으로 신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Standard & Poor's)사는 이미 지난 6월 20일 회사의 해외 장기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으며, 국내 대표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정보(주)와 한국신용평가(주)도 회사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다 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패트리샤 워츠 셰브론 수석부사장 접견



허동수 회장은 지난 7월 12일 합작사인 패트리샤 워츠(Patricia A. Woertz) 셰브론(Chevron) 수석부사장 일행을 접견하고 함께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허동수 회장은 워츠 수석부사장 일행과 함께 연말 완공 예정인 고급휘발유 원료 제조공정인 알킬레이션 공장과 새롭게 건설 중인 중질유 분해시설 고도화 설비(Heavy Oil Upgrading) 프로젝트를 현장 을 둘러봤다. 이날 허동수 회장은 워츠 수석부사장 일행에게 GS칼텍스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고유가 등 급변하는 에너지업계의 환경변화 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위원장 선임

허동수 회장은 지난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율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허동수 회장

을 비롯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율관리 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을 제정해 기업에 도입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관리 프로그램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명확한 계약, 제품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피해 발생 사전예방, 피해발생 상담 및 구제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등이 담길 예정이다.

GS칼텍스

2005년 스타 페스티벌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6월 14일 본사 아모리스홀에서 회사 계열 전 주유소 및 충전소 중에서 경영실적 및 서비스가 뛰어난 곳을 선발해 시상하는 '2005년 스타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동반 가족 및 임직원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 서비스 부문, 판매 부문, 직영주유소 운영 부문, 충전소 부문, CR 부문, 특별 부문, 신규 부문, 디지털 부문 등 총 9개

부문에서 총 78개의 우수 주유소, 충전소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

GS칼텍스

친환경 세탁용제 킭솔 출시



GS칼텍스는 지난 6월 20일 친환경 세탁용제 킭솔(Kixx-sol)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킭솔은 인체에 해로운 방향족 성분을 제거한 친환경 세탁용제로, 기존의 세척력은 유지하면서도 석유화학제품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우수한 세탁용제이다. 회사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월 2일 탈방향족 공정(Dearomatization)을 준공했으며, 친환경 세탁용제를 연간 4만t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GS칼텍스는 2008년부터 예정된 악취 방지법에 대비하고 환경친화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이와 같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GS칼텍스

여름 휴가철 고객행사 전개

GS칼텍스는 회사 출범 100일을 기념해 '휴(休)페스티벌' 행사를 전개한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GS칼텍스 주유소 및 충전소, 조이마트(joyMart), 오토



오아시스(autoOasis)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행사-응모권을 전달하고, 주침을 통해 해외여행권(200명), 제주도 여행권(100명), 강촌리조트 숙박권(500명) 등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www.kixx.co.kr)를 방문하여 응모권에 쓰인 응모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GS칼텍스

어린이 가족극 고객행사에 부산지역 고객초청



GS칼텍스는 6월 25일과 26일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회사 고객초청 어린이 가족극 '이중섭 그림 속 이야기' 공연을 열었다. '이중섭 그림 속 이야기'는 천재화가 이중섭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이용해 아이들의 동심을 보여주는 가족극으로, 이날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은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에스-오일

‘에스-오일 보너스 롯데카드’ 출시



에스오일은 최근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에 자체 보너스 카드 기능을 추가한 ‘에스-오일 보너스 롯데카드’를 출시했다.

‘에스-오일 보너스 롯데카드’는 에스오일과 제휴한 일반 신용카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주유시 리터당 50원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결제금액의 0.5%를 에스오일 보너스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로는 사은품을 신청하거나 주유대금결제(Cash-back)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에스-오일 보너스 롯데카드’는 차량무료점검, 상해보험 등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기존 롯데카드 서비스와 접목시켜 편의성을 높였다.

에스-오일

‘10회 눈빛미술제 열려 미술동호인 481명 전시



울산지역 미술인들의 축제 ‘아름다운 눈빛미술제’가 지난 6월 20일 개막식을 갖고 24일까지 문예회관 1~4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에스오일의 단독

후원으로 10회 째 열린 올해 눈빛미술제는 36개 미술동호회와 개인 등 4백81명이 한국화·서양화·도예 3개 부문에 작품을 출품,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또 이번 눈빛미술제는 지난 6월 8일 서생면 간절곶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20점의 회화 작품도 함께 전시했다.

에스-오일

온산 ‘친환경 오리쌀’ 생산단지 시연회

에스오일이 지원하는 ‘친환경 오리



쌀 생산단지 시연회가 지난 6월 14일 울주군 온산을 삼평리 상화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시연회는 에스오일의 하성기 부시장과 신진규 노동조합 위원장, 임창섭 울주군수와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방사와 함께 온산농협 한울림 품물패의 품물놀이, 오리농법 시연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에스-오일

소설가 성석제 씨 ‘13회 오영수 문학상’ 수상

에스오일과 울산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 13회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6월 9일 오후 6시 문수컨벤션센터 티파니홀에서 열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성석제 씨에게 상패와 1천5백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에스오일의 하성기 부시장과 신세훈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장, 오영수 선생 유족을 비롯해서 역대 수상자와 지역 예술인 등 1백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현대오일뱅크

제 41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7월 1일 마흔 한 번째 생일을 맞았다.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30일 서울사무소와 대산본사에서 동시에 제41주년 창립기념식을 갖고, 우수협력업체와 장기근속자에 대한포상을 실시했다.

이날 서영태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불혹이라는 나이는 어떠한 유혹의 굴곡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중년의 모습으로 인생의 해인과 참 맛을 알아가는 시기”라며 “41년 역사를 만들어준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 임금협상 회사유임



현대오일뱅크

장애인 세차도우미 금강산 직무교육 실시



현대오일뱅크 직영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22명의 정신지체 세차도우미들이 직무교육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2박 3일간 금강산을 다녀왔다.

전국 7개 직영주유소에서 세차도우미로 열심히 일해온 장애인 세차도우미들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비스 재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직무교육은, 장애인 세차도우미 외에도 장애인 세차도우미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가족과 직영주유소 소장들도 함께 참여, 장애인 세차도우미들과의 상호 연대감을 높였다.

장애인 세차도우미들과 가족들은 지난 7월 10일 모란봉 교예단의 멋진 서커스 공연을 시작으로, 금강산 구룡연 코스를 등반했으며, 지난 98년 북한내 주유소로는 처음으로 개설된 현대오일뱅크 금강산 주유소를 방문, 견학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05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해 41년간 무분규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금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창립 이래 무분규 타결을 이어왔던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위원장 김태경)은 지난 6월 29일, 2005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결정을 사측에 위임한다고 밝혀, 지난 64년 회사 창립이래 41년간 무분규 사업장의 전통을 이어갔다.

현대오일뱅크

환경연합 발표 기업사회책임 업계 1위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가 국내 30대 주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발표한 지속가능경영지수(SMI: Sustainable Management Index)에서 전체 순위 8위, 정유업계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820MVA급 미국서 수주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 본부가 최근에 365kV 820MVA 급 변압기 1기를 미국 5대 환경기업인 블랙 앤비치사로부터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국내 기업이 수출한 변압기 중 최대 용량

으로 울산시 30만 가구 전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가로 11.5m, 폭 6.3m, 높이 9.1m에 총 중량이 자그마치 351톤에 이르는 초대형 전력설비다.

현대 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세계적인 전력기업체인 다국적 기업 ABB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것”이라며 “북미지역 대용량 변압기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가스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SK가스는 지난 6월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13개 협력업체 대표자를 초청해 ‘상생 협력을 위한 SK가스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청와대 주제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이라는 정부와 SK그룹의 대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SK가스 김세광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SK가스와 협력업체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이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협력업체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한국남동발전

선진정비체제구축

한국남동발전이 ‘예측진단시스템’을 영흥화력에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상태중심정비체제에 진입했다. 영흥화력에 설치된 예측진단시스템은 설비상태에 따라 정비하는 상태중심정비로 선진화된 정비체제를 의미하며 이 정비체제는 예방정비와 고장정비로 나뉜다.

예방정비는 주기중심정비(Time Based Maintenance)와 상태중심정비(CBM)로 구분되며 주기중심정비는 일

정기간 계획예방정비 또는 기기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수행되며, 이 주기는 제작자 권고사항 및 운전경험을 근거로 정해진다.

한편, 상태중심정비는 설비상태에 기반을 둔 정비방법으로 지속적인 운전자료 분석과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취득한 주요 설계와 운전 변수의 추이를 분석,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동서발전

발전회사 경영평가 1위

동서발전이 한전의 발전자회사 경영실적 평가 1위를 차지했다. 한전은 동서발전이 수익증대 노력, 설비신뢰도 향상 및 뛰어난 경영혁신 등을 인정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결과 발전회사는 지난해에 비해 부채비율 하락 및 국제신용등급 향상 등 재무건전성이 대폭 강화됐고, 발전소 고장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연료수급상황도 개선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전회사 직원의 청렴도 지수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향후에도 발전회사가 자율경영 및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효율을 향상하고,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동해-1가스전 가스생산 1주년



우리나라를 전 세계 95번째로 산유국 대열에 진입시킨 "동해-1 가스전"이 2005년 7월 11일 성공적인 가스생산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98년 국내대륙붕 6-1광구에서 탐사시추에 성공, 경제성있는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고 3년간에 걸쳐 생산시설을 건설, 2004년 7월 11일부터 석유공사가 1년간 생산해낸 천연가스는 173억 입방피트(LNG 환산 40만톤), 원유는 42만 배럴에 이른다. 생산된 천연가스와 원유는 울산 및 경남지역의 일반가정 및 발전소 등에 공급됐으며, 천연가스는 하루 34만 가구, 원유는 하루 자동차 2만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동해-1 가스전은 천연가스 총 매장량 2,500억 입방피트(LNG 환산 500만 톤), 원유 200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으며, 매년 약 40만 톤씩 향후 15년 동안 울산, 경남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수입대체효과는 15억 달러에 이른다.

SK

호주유전개발 참여

SK가 남미에 이어 자원 미개척지인 호주로 해외자원개발의 영역을 확장한다. SK는 신현철 사장이 지난 7월 13일 저녁 호주로 출국, 현지 합작 탄광인 스프링벨을 방문하고 현지 조인트벤처 파트너사인 센트니얼사와 호주 및 아시아 지역의 공동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현철 사장의 호주 방문에 대해 업계에서는 탄광사업 점검뿐만 아니라 11~12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한·호 자원협력위원회'의 후속 조치

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호 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LNG 구매 확대와 올해와 내년에 있을 석유 가스광구 입찰에 적극 참여키로 한 만큼 신 사장의 방문으로 SK의 호주 유전개발 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LG상사

오만에 합작사 설립

LG상사가 중동 오만의 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을 위해 6,000만 달러를 들여 합작사를 설립한다. 지난 7월 18일 LG상사는 이사회를 열고 총 사업규모 10

억 달러의 '오만 아로마틱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합작법인 '아로마틱스 오만 LLC'(이하 오만LLC)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만LLC는 오만 소하르 산업단지내 벤젠 및 파라자일렌(PX) 제조공장(아로마틱스 플랜트)을 건립하고 제조원료의 판매를 관리하게 된다. 아로마틱스 플랜트는 2006년 1월 착공된 뒤 2008년 3·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되며 매년 벤젠 20만톤과 PX 80만톤을 생산해 연매출 7억5,000만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실험실운영자협의회 및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지난 7월 15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검사소, 정유사, 자동차제조사 등 석유관련 시험실 책임자로 구성된 시험실운영자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 자동차용 휘발유 환경관심 항목인 올레핀 분석기술을 비롯, 최근 친환경적인 대체연료로 관심을 끌고 있는 바이오디젤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 석유품질 현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대기환경오염주 원안물질인 황분, 방향족화합물 등 석유제품 환경규제 관련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기술과 시험기기 및 분석방법에 대한 각 기관별 경험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교환이 이뤄졌다.